

② 도시와 어촌의 교류 실태 및 사례 ①

혜택받은 자연경관과의 조화-

후카우라정

1. 서 언

후카우라정(深浦町)은 아오모리현(靑森縣)의 서남부에 위치하여 서쪽은 일본해에 접하고 있고 북부는 아지가사와정(鯨ヶ澤町)에, 남부는 이와사키촌(岩崎村)과 아키타현(秋田縣)에 접하고 있다.

후카우라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고 해안선은 46km나 된다. 해안으로부터 남동쪽의 내륙부는 세계유산 「시라카미(白神) 산지(山地)」를 향해서 해안 단구(段丘)가 이어지고 있다. 총면적은 315.19km²로 현역(縣域)의 3.3%를 점하여 현내에서 6번째로 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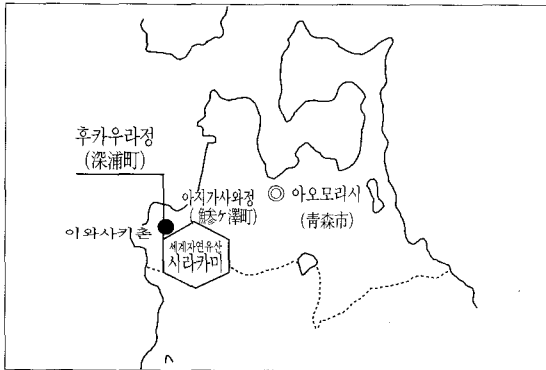
후카우라 내에서는 시라카미산지를 수원으로 하는 오이라세천(追良瀨川), 오도지천(大童子川), 고도지천(小童子川)이 일본해로 흘러들고 있다. 지형은 해안에서 산악지대까지 변화가 많고 온천의 용출도 있어 해산물, 산산물이 풍부하고 자연경관도 뛰어나 쓰가루(津輕)국정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과거의 후카우라는 북전선(北前船)의 ‘순풍을 기다리는 항구’로서 번창하여 오사카(大阪)나 교토(京都) 등에서

문화도입의 정식현관으로서 발전하여 왔다. 현재, 과소화 현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업을 중심으로 한 제1차산업의 진흥을 꾀하면서 후카우라의 혜택받은 자연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관광산업에 주력 「석양해안(夕陽海岸) 후카우라」를 캐치프레이즈로 관광 어촌을 노리고 있다.

기후로는 여름은 서늘하고 겨울은 시베리아에서 강한 계절풍이 휘몰아치기도 하지만 쓰시마(對馬)해류의 영향으로 위도에 비해서 비교적 온난하여 현내의 타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식물의 생육이 인지되어 식물지리학상 귀중한 자연자료로 남겨져 있다.

주요한 교통망은 JR고노선(五能線)과 아오모리·아키타를 잇는 국도 101호가 간선도로로 되어 있어 일본해쪽을 달리는 대동맥으로 산업, 문화의 면에서도 지역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노선이다.

또한 JR고노선은 승차해 보고 싶은 로컬선의 상위에 올라 있고 현재 ‘리조트 시라카미(白神)호’가 운행되고 있으나 금년 4월부터 신형차량이 선보이게 되어 있다.



본 사업의 대처에 기대된 것은 장래 후카우라정에 있어서 체험교류사업의 정착을 위한 받아들이는 체제나 운영 등에 관한 의미가 강하였다.

(2) 도시어촌교류 추진사업의 내용

후카우라정에 있어서 1996년도~1998년도에 걸친 도시어촌교류 추진사업의 실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도시어촌교류 추진사업 대처의 개요

(1) 대처의 배경과 경위

후카우라정의 기간산업은 제1차산업이지만 취업자의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연간 80만명 가까운 관광객(1997년 자료·2001년은 101만명)의 내방실적을 살린 또 하나의 기간산업으로서 관광진흥이 모색되고 있다.

쓰가루 국정공원으로 지정된 뛰어난 해안경관과 세계유산인 '시라카미산지'라는 혜택을 받은 자연경관의 조화를 전제로 고령 농어업자의 활용이나 겸업 기회의 창출, 그 지방 특산품의 새로운 발판을 통한 종합적 산업진흥을 도모하고, 동시에 과소화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젊은이 정주축진이 후카우라정의 주요시책과제로 되어 있으며, 체험교류형의 관광시설이나 삶의 지혜, 산업기술 등 여러분야에 정통한 정민(町民)의 인재은행 활용사업 등의 새로운 대처를 중심으로 관광진흥시책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와같은 상황속에서 후카우라정에 있어서 제1차산업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종합산업 진흥의 취지에 맞는 '도시어촌교류사업'의 정보를 얻어 1996년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이후 1998년도까지 3년간 활동을 계속하였다.

1) 도시어촌교류 추진협의회의 설치와 협의회의 개최

도시어촌교류 추진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 도시어촌교류추진협의회를 설치하였다. 멤버는 당초(1996년도) ① 지도기관 1명 ② PR단체 1명 ③ 어업단체 4명 ④ 어협여성부 1명 ⑤ 부인회 1명 ⑥ 상공회 1명 ⑦ 후카우라정 4명의 계 13명이 선출되어 연간 3회의 협의회(사업계획, 조사보고, 사업검토, 차년도 사업계획의 검토 등)을 개최하였다.



〈사진-1〉 협의회

2년째인 1997년도는 1년째와 같은 멤버로 구성되었다가 1998년도에 약간의 멤버 편성을 바꾸었다. 부인회, 상공회 및 정직원이 각 1명씩 협의회를 그만두고 대신 학식경험자(현 수산개량 보급소 직원) 1명, 관광협회나 선어판매자 등 관

평관계의 PR단체출신자가 2명 참가하였다. 2년간의 활동을 통한 협의회 멤버에 의해 현장주의의 틀이 만들어졌다.

동 협의회는 아오모리현 전체의 도시어촌교류 사업에 공통적 명칭인 '발랄한 어촌교류추진협의회'로 개칭되어 체험교류활동의 지역으로서 대처방법의 협의·검토를 하면서 인재육성이나 수입(受入)체제정비의 추진모체로 되었다.

2) 도시어촌교류추진원의 구성

도시어촌교류추진사업의 현장 담당자인 추진원은 협의회 구성 멤버 중에서 선출되어 초년도는 어협직원 2명, 정직원(町職員) 2명 계 4명이었으나, 2년째는 어협직원이 1명을 줄고 대신 어협 부인회 대표 1명이 늘어 정직원 2명이 보좌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3년째인 1998년도에는 사업의 추진체제 등이 어느정도 정착하였으므로 멤버구성에 있어서도 현장주의를 취하여 어협직원 2명, 어협 부인회 1명, PR단체(관광관련) 1명의 계 4인 체제로 정착하였다.

3) 선진지 사례조사와 추진원 연수

도시어촌교류사업의 담당자인 추진원을 대상으로 현내외의 선진지 사례조사, 연수회 참가 등을 실시하였다. 각 연도별 활동실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1996년도 실적

· 치바시(千葉市) 마쿠하리(幕張)에서 (재)전원지역진흥센터 주최로 실시된 「전기의 고향 지만시」(1996년 11월)에 추진원 3명을 파견하고 ①후카우라정의 특산품 PR, ②관광팜플렛 배포 및 포스터 게시에 의한 PR활동, ③안테나숍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 도시어촌교류 추진사업을 하고있는 나가사키현(長崎縣) 다카시마정(高島町)의 현지 시찰

과 의견교환을 1997년 3월에 실시하였다.

· 아오모리현 주최의 도시어촌교류 추진연수회가 후카우라정에서 개최되어 강연회와 현하의 추진사업의 보고회에 추진원과 어업자 등이 참가하였다.

· 수산청 주최의 도시어촌교류 추진사업 실시상황 및 교류추진의 의견교환회에 추진원 1명을 파견하였다.

(2) 1997년도 실적

· 1996년도에 이어서 1997년 11월에 치바시 마쿠하리에서 개최된 「전기의 고향 지만시」에 추진원 1명이 참가시키고 ①후카우라정의 특산품 PR ②관광팜플렛 등의 배포에 의한 PR활동 ③지쿠지(築地)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 아오모리현 주최의 도시어촌교류 추진원 육성연수회(1998년 2월)가 아오모리현 와키노사와촌(脇野澤村)에서 개최되어 추진원 1명이 참가하였다.

· 후카우라정 주최의 도시어촌교류추진연락회의(1998년 2월)가 후카우라정에서 개최되어 후카우라정 및 나가사키현 다카시마정의 추진원 등이 참가하여 도시어촌교류추진사업의 실시상황 보고와 양정(兩町) 추진원의 교류가 시도되었다.

(3) 1998년도 실적

· 1996·1997년도에 이어서 1998년 11월에 치바시 마쿠하리에서 개최된 「전기의 고향 지만시」에 추진원이 참가하여 후카우라정의 특산품·관광 PR 활동을 실시하였다.

· 후카우라정 주최의 배낚시 매너 강습회(1999년 3월)가 후카우라정에서 개최되어 추진원 3명이 참가하였다.

· 후카우라정 주최의 도시어촌교류연수사업(1999년 3월)이 북해도 오시마(渡島)지청관내의 선진지 시찰연수로서 개최되어 추진원 4명이 참가하였다.



〈사진-2〉 지만시 마쿠하리 멧세



〈사진-3〉 추진원의 시찰연수 오시마(渡島) 지청관내 시찰

4) 계발보급 활동

1996년도부터 1998년에 걸쳐 수도권 거주외 후카우라정 출신자로 조직되어 있는 '후카우라회도교'와의 교류회를 실시하여 지방농수산물이나 특산품의 PR활동을 하였다.

기타 1996년도~1997년도의 2년간은 히토사키(弘前)시내의 백화점에서 개최된 「마을일으키기 특산전」에 참가, 1997년도에는 신선한 어패류를 제공하였으며, 동계 관광객 유치를 전개하고 있는 관광협회 주최의 「먹거리 in 후카우라」 참가자에 의한 낚시 대회와 매너 계발이벤트를 실시하였고, 1998년도에는 아오모리시에서 개최된 문화디자인 회의 '98 웰컴파티에 참가하여 지방특산품의 PR활동을 실시하였다.

(3) 체험활동의 내용

후카우라정에서 1996년도~1998년도의 3년간에 실시한 체험활동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물가 체험학습

도시가족(히로사키 시내의 가족이 참가)을 대상으로 저인망그물, 해변가 쓰레기 줍기, 대모망그물 일으키기 체험, 바다 생물학습, 해조표본 만들기, 성게까기나 쥐치의 껍질벗기기 체험 등을 실시하였다.

(1) 1996년도 실적

후카우라 소학교 및 PTA가 주최하여 지역아동과 히로사키시내의 가족동반, 기타 지방어협회의 회원 등 400명이 참가하여 1996년 8월에 개최되었다. 체험활동의 내용은 저인망그물, 바닷가의 쓰레기 줍기, 물고기의 이름 맞추기 등의 학습을 하였다.

(2) 1997년도 실적

후카우라정 주최로 히로사키 시내의 가족동반, 어업자, 협의회 위원 등 75명 참가하여 1997년 7월에 개최되었다. 본 체험활동의 내용은 대모망그물 일으키기 견학, 해조표본 만들기, 바다 생식생물의 관찰학습, 민속자료관 견학, 어법의 어업학습 등을 하였다.

(3) 1998년도 실적

후카우라정 주최로 산간부의 소학교 5~6년생 12명과 인솔교사 3명 계 15명을 대상으로 1998년 7월에 1박2일의 일정으로 제1회 체험활동을 개최하였다.

과거 2년간 외래참가자는 히로사키시내의 가족동반이었으나 1998년도부터 산간부의 초등학생과 숙박 형태로서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제1회 활동을 1박2일의 일정으로 한 것은 1996년도~1997년도의 활동실적이 하루 일정이었으므로 체

험학습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는 반성에 입각한 것이다. 구체적 체험활동의 내용은 해수욕, 해조표본 만들기, 대모망 그물 일으키기 견학, 안벽낚시체험, 성계까기나 쥐치의 껍질벗기기 등 다양한 메뉴가 가능해졌다.

제2회에도 같은 히라가정의 5~6년생 27명 및 학부모형 9명, 정교육위원회 인솔 2명 계 38명의 참가로 일일 체험활동으로서 여름휴가인 8월중순에 실시되었다. 체험활동의 내용은 대모망 그물 일으키기 견학, 바다의 동식생물 관찰, 해조표본 만들기, 민족자료관 견학을 하였다.

2) 기타

① 방류체험학습

정 내외의 아동, 생도를 대상으로 연어·송어의 채란수정·치어의 방류, 조피불나 치어의 표지방류체험 등을 실시하였다.

② 숲과 바다만들기 운동

정내의 어업자에 의한 식림활동을 실시하였다.

③ 생선정기 추첨회

정 내외 일반객의 참가로 대형정치망체험과 연어불잡기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3. 사업의 성과와 현황에 대하여

체험활동의 내용중 참가자에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대모망 그물 일으키기 견학이고 어린이들의 감동은 그 후 보내온 가상문집에 여실히 나타나 도시의 아동에게 어업에 대한 흥미와 올바른 이해를 주었다고 판단된다.

‘후카우라회 도교’에서 특산품이나 관광정보의 제공은 추석 등에 고향으로 귀성을 촉진하였다. 한편 도시어촌교류사업의 중핵인 히로사키 시내나 산간부의 소학생을 대상으로 한 ‘바닷가의 체험학습’은 현재로서는 여름방학중에 가족동반 해수욕객의 증가로 이어져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현재로는 ‘후카우라회 도교’의 회원 자녀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바닷가의 체험활동’이나 지방 어린이들과의 교류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 작년에는 후카우라의 어린이들이 도교에 가서 도시의 체험을 하는 등 폭넓은 교류가 행해지기도 하였다.

이때까지의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 후카우라정의 대처로서 어촌에 살면서 실제로 어업에 접촉할 기회가 적어 생선에 대하여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어도 좀처럼 그 기회가 오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체험학습 등을 통하여 자신들 가까이 있는 후카우라정의 수산업에 대하여 학습하고 장래의 어업후계자 등의 육성을 꾀할 목적으로 한 사업을 2002년 12월 「후카우라 마린키즈」라는 명칭으로 출발하였다. ㉠



〈사진-4〉 그물 일으키기 체험



〈사진-5〉 방류사업 체험